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BC: 미 기업들, “미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제조업 안 옮긴다”
- Reuters: 3월 미 수입 물가 예상외로 떨어져... 에너지가 하락 탕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는 약세인데 미 국채 금리는 높네’
- WSJ: 월가 은행들 1분기에는 ‘지속적인 소비 지출’ 경험

[미 관세 여파]

- 그림으로 본 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 투자 순위
- YahooFinance: 반도체와 약품 가능성에 유럽과 협의는 진전 없어
- WSJ: 관세 갈등 확대로 중국 항만 화물 처리 둔화
- WSJ: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중국 내 미제품 인지도 위협받아

[오일]

- WSJ: 유가 하락... IEA, 원유 수요 전망 하향과 공급 과잉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중국,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 지시
- WSJ: 아메리칸항공, 기내 무료 와이파이 도입 관련 경쟁 가속화
- Bloomberg: 우버, 애틀랜타서 웨이모 자율주행차 탑승 대기자 받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CNBC: Trump tariffs won't lead supply chains back to U.S., companies will go low-tariff globe-hopping: CNBC survey
미 기업들, “미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제조업 안 옮긴다”

- CNBC의 공급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고비용 때문에 제조업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답했다. 설사 옮기더라도 81%의 기업들은 인력 사용보다는 자동화를 선호할 것이라 밝혔다.
- 조사 대상 중 절반 수의 기업들은 리쇼어링(미국으로 다시 옮김)에 비용이 두배가 될 것으로 보며,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관세가 적은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 또한 설문에서 61%는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소비 수요가 감소한다고 답했으며, 63% 기업들은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Reuters: US import prices unexpectedly fall in March on cheaper energy goods

3월 미 수입 물가 예상외로 떨어져... 에너지가 하락 탕

- 3월 미 수입 물가가 예상외로 하락했는데 이는 원유 등 에너지 품목 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기 힘들 수도 있다.
-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청 보고에 따르면, 2월에 수입 물가는 0.2% 하향 조정됐고 3월에도 0.1% 하락했다. 작년 3월과 비교해서는 수입물가가 0.9% 상승했다.
- 이 같은 보고서는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최근 완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Dollar's Link to US Treasury Yields Weakens as Confidence Cracks

‘달러는 약세인데 미 국채 금리는 높네’

- 일반적으로 달러와 미 국채 금리는 비례하는데, 그 간의 연결성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 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침체 리스크가 오면서 투자자들이 미 자산에서 후퇴하면서 달러는 급속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이 가운데, 장기 국채 금리는 거의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는 달러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달러의 안전성과 중심 역할에 대해 의문시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 사이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
- 향후를 예상하는 옵션 포지셔닝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달러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Big Banks Show Consumers Remained Resilient Heading Into Tariff Turmoil

월가 은행들 1분기에는 ‘지속적인 소비 지출’ 경험

- 미국인들은 경제과 인플레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아직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오늘 화요일에 고객들의 지출이 1분기에 약간 상승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관세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기간이다.
- JP 모건 또한 지난주에 고객들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소비가 늘었다고 말했다.
- 이같은 현상에 소비자들이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지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그러한 반면 4월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WSJ 기사

[미 관세 여파]

그림으로 본 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 투자 순위:

YahooFinance: Trump tariffs live updates: Semiconductor and pharma probes proceed, EU talks make 'little progress'
반도체와 약품 가능성에 유럽과 협의는 진전 없어

- 트럼프가 일부 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관세를 유예한 데다 자동차 관세도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물론 “관세에 예외가 없다”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 트럼프가 전화, 컴퓨터와 다른 전자제품에 대해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품목과 회사들이 일시적인 관세 유예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국가 안보 여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WSJ: China's Port Cargos Start to Slow as Tariff Tensions Escalate
관세 갈등 확대로 중국 항만 화물 처리 둔화

- 4월 초 중국 항만 활동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중국 항만의 화물 처리가 그 전주보다 9.7% 낮아진 2억 4천4백만 톤으로 나타났다.
- 이는 트럼프가 중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주 동안에 기록된 0.88% 손실보다도 큰 규모다.

WSJ 기사

WSJ: Trump's Trade War Deepens Threat to U.S. Brands in China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중국 내 미제품 인지도 위협받아**

- 트럼프의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인들이 미국 제품 브랜드보다 국내 브랜드를 선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Yonghui Superstores는 “자사의 진열대를 중국 제품으로 채우자”라며 중국기업들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 이미 많은 미국의 브랜드들 나이키, 스타벅스 등은 중국 관련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미국의 입지와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
- 3월에 나이키는 중국에서의 분기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고, 3월에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12% 줄었으며, BMW와 포르쉐, 애플, 스타벅스 등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WSJ 기사

[오일]

WSJ: Oil Swings as Trade War Tumult Cements Expectations of Surplus **유가 하락.. IEA, 원유 수요 전망 하향과 공급 과잉 경고**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기존 대비 3분의 1 가까이 낮췄으며, 공급 과잉 상태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 침체 우려로 이달 들어 유가는 약 10달러 하락했다. OPEC+의 예상보다 빠른 증산 결정과 수요 감소로 2025년의 공급 과잉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HSBC 등 분석가들은 평가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China Orders Boeing Jet Delivery Halt as Trade War Expands **중국,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 지시**

-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보잉 항공기의 신규 인도를 중단하고, 미국산 항공기 부품 및 장비 구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의 145% 보복 관세에 따른 조치로, 미국산 항공기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때문이다.
- 중국의 조치가 보도되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중국은 전 세계 항공기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지만, 무역 갈등과 보잉의 품질 문제로 인해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대규모 항공기 주문은 받지 못했다.
- 애널리스트들은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수요로 당장 보잉의 생산 확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중국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 Airlines to Provide Free Wi-Fi, Joining Race to Court Connected Travelers

아메리칸항공, 기내 무료 와이파이 도입 관련 경쟁 가속화

- 아메리칸항공은 AT&T와의 제휴를 통해 2026년 1월부터 AAdvantage 멤버십 고객에게 무료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델타항공은 2023년부터 무료 와이파이를 도입했고, 유나이티드항공도 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제트블루는 이미 10년 넘게 무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항공사들은 기내 와이파이를 승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항공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과 함께, 아메리칸 주가는 올해 들어 45% 이상 하락한 가운데, 비즈니스 고객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실적 회복을 노리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ber Opens Waitlist for Waymos in Atlanta Ahead of Summer Launch

우버, 애틀랜타서 웨이모 자율주행차 탑승 대기자 받는다

- 우버는 올여름 예정된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출시에 앞서 애틀랜타 지역 고객을 위한 대기자 명단(interest list)을 앱 내에 개설했다. 등록자는 서비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없는 차량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 우버-웨이모 서비스는 애틀랜타 65제곱마일 범위에서 우선 시작되며, 향후 지역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우버는 현지 운영을 위해 스페인 차량 운영업체인 Avomo와 협력 중이며, 도심 북쪽으로 규모적 차량 기지 건립도 준비 중이다.
-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 개발 대신 파트너사와 협업해 플랫폼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웨이모는 오스틴과 애틀랜타에서 우버 앱을 통해서만 차량 호출 가능하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미 우버 앱을 사용 중인 기반을 활용해 무인차 수용 속도를 높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예측불가 트럼프 관세에...미 국채 기간 프리미엄 10년만에 최고 일본 초장기채 프리미엄도 23년만에 가장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일본의 초장기채 프리미엄 역시 재정 지출 증가 전망 영향으로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최신 지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0.71%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

일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